

부 고

마리아 가브리엘(SISTER MARIA GABRIELE)

가브리엘 하크스테드(Gabriele HACKSTEDT) ND 7228



독일, 코스펠드 여왕이신 성모님 관구

출 생 : 1960 년 10 월 13 일 클로펜부르그 바젤
서 원 : 1988 년 3 월 19 일 웨히타 마리엔하인
사 망 : 2014 년 2 월 7 일 웨히타 마리엔병원
장 례 : 2014 년 2 월 14 일 웨히타 마리엔하인 수녀원 묘지

*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. 나는 너에게 말한다. “두려워하지 마라.
내가 너를 도와주리라.” 이사야41,13*

마리아 가브리엘 수녀는 하느님의 이 약속을 신뢰했으며 깊은 병을 앓고 있던 시기에는 이 위로의 말씀이 수녀에게 힘과 믿음을 주었다.

마리아 가브리엘 수녀, 가브리엘 하크스테드는 클로펜부르그 주 바젤에서 베르나르드와 처녀명 불피며였던 마리아 하크스테드의 딸로 태어났다. 가브리엘은 출생 후 바로 다음날 상태가 위독하여 급히 세례를 받는다. 남자 형제 둘과 자매 한 명과 함께 부모님의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980 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교육을 공부한 후 1985 년 10 월 10 일 웨히타에 있는 수녀원에 입회하였다.

1992 년, 가브리엘 수녀는 마리엔하인에 있는 기술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시에 웨히타에서 교육학 학위를 취득하였다. 수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다채로운 지식을 유능하게 전달하며 여러 해 동안 가르친다. 어린이집의 사감으로서 수녀는 큰 이상을 가지고 자신의 인간적이고도 전문적인 능력을 사용하였다. 영국 케터링 수녀원에서 지냈던 4 년간의 체류는 수녀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이곳에서도 교수와 공부를 병행했다.

마리아 가브리엘 수녀는 수녀회에서 제 2 관구 참사로서 그리고 당시 마리엔하인 본원 참사로서 유기서원기에 관련된 일에 협력함으로써 깊이 투신하였다. 수녀는 항상 개방적이고 이해심 있는 방식으로 각자 안에 있는 선을 바라보며 소통할 줄 아는 대화 상대로서 인정받았다.

2006 년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험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 힘들고 기나긴 수술 부작용을 견디며 힘을 소진했다.

2013 년 4 월 14 일 토요일, 수녀는 동료 수녀들과 함께 은경축을 맞이했고 2013 년 4 월 26 일에는 부모와 가족이 경축행사에 초대되어 왔다. 자리했던 모든 사람이 즐겨 거듭 이야기했을 만큼 행복한 날이었다.

지난 몇 달간 수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며칠씩 병원에서 머물러야 했다.

2014 년 2 월 6 일, 가브리엘 수녀는 당시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서 모든 가족들이 작별을 고하러 모여왔다.

우리는 2014 년 2 월 7 일 아침, 주님께서 마리아 가브리엘 수녀를 당신 손으로 이끌어 수녀의 영원한 고향 낙원으로 데려가셨다고 믿는다.